

1945년-1955년의 제주지역 4·3사건 관련 유적 분포 및 주거건축물의 특징 연구

김 태 일*

요 약

제주지역에서의 1940년대와 1950년대는 혼란의 시기였으며 동시에 근대화로 이행해 가는 변혁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1948년에 발생한 4·3사건, 1950년에 발생한 한국전쟁과 같은 큰 사회변동 이후의 주거건축 변화에 관한 조사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관련 자료도 미비하거나 정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주거건축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나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4·3사건 관련 역사유적 및 건조물의 지역적 분포 현황 및 분석을 통해 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 수집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현장연구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문헌연구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가장 사실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언론기관의 신문자료와 행정기관의 간행물 활용하였다. 현장조사의 경우, 현존하는 주거건축물에 대한 실측 조사와 현지의 지역주민의 관련증언 등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주거건축물의 특징을 분석함에 있어서 형태, 공간, 재료, 구조 및 설비의 요소를 중심으로 특징적인 부분을 다룰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형태적 측면과 공간적 측면을 중심으로 특징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4·3사건 조사보고서의 자료를 활용하여 피해의 공간적 분포 특징을 새롭게 분석하였고 특히 토벌대의 주둔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정도가 커서 상호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소실된 마을, 은신처, 학살터, 그리고 방어목적으로 구축된 성(城) 등은 지역적 분포가 각각 다른 특징을 보였는데 이는 토벌대의 작전전개 방식이나 지역적 여건 등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1950년대 들어 한국전쟁으로 인해 피폐화된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피난민주택, 후생주택(재건주택)의 주택들이 건축되었고 이들 주택들은 임시적으로 방어목적으로 구축된 성(城)을 제외하고는 이들 구조물은 제주의 전통 건축과는 전혀 다른 재료 즉 시멘트와 목재를 사용하는 등 재료적인 차이점도 있으나 형태와 공간구조를 구축된 건축물이라는 점이 가장 특징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4·3사건 관련 유적과 주거건축물의 분포를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나 연도별 그리고 규모별 특징분석에 이르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자료수집과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 색인어: 4·3사건, 한국전쟁, 주거건축물, 제주건축물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주지역에서의 1940년대와 1950년대는 혼란의 시기였으며 동시에 근대화로 이행해 가는 변혁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과정에서 다양한 주택이 등장하였고 특히 1940년대 제주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4·3사건 당시 소실된 중산간 마을, 잃어버린 생활공간 의 복원과 활용방안 검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특히 1945년 해방이후 발생한 4·3사건, 한국전쟁과 같은 큰 사회변동 이후의 주거건축 변화에 관한 조사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관련 자료도 미비하거나 정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주거건축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나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주거건축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를 평가하여 보존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해방이후 혼란의 시기였던 10년, 즉 1945년-1955년 사이에 초점을 두고 제주지역의 4.3사건 관련 유적의 지역적 분포 현황과 주거건축물의 특징분석을 통해 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 수집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방법

6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 유적 및 건조물들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또한 그 당시 기록들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여서 자료 정리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범위를 1945년-1955년으로 하고 공간적 범위를 제주도로 한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문헌연구와 현장연구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문헌연구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가장 사실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언론기관의 신문자료와 행정기관의 간행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4·3사건 유적분포분석은 「제주4·3유적 I II」(제주도/제주4·3연구소, 2003), 「제주4·3유적 종합정비 및 유해 발굴 기본계획」(제주도/제주4·3연구소, 2005)을 활용하여 분포현황 및 유적별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당시의 주거건축에 대한 자료 수집은 신문자료집인 「제주실록」(제주도, 1997), 제주도의 간행물 「제주도」를 중심으로 1945년-1955년 사이 주거건축관련 기사를 정리하여 사회변화 함께 나타났던 주거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현장조사의 경우, 문헌정리를 통해 파악된 주거건축물에 대하여 현존하는 주거건축물에 대한 실측 조사와 현지의 지역주민의 관련증언 등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주거건축물의 특징을 분석함에 있어서 형태, 공간, 재료, 구조 및 설비의 요소를 중심으로 특징적인 부분을 다룰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형태적 측면과 공간적 측면을 중심으로 특징을 분석하였다.

II. 분석 결과

1. 4·3사건 관련 주요 유적분포 현황

4·3사건 관련 유적들이 제주지역에는 걸쳐 산재해 있어서 이들 유적 보존과 자원 활용의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주 4·3유적 종합정비 및 유해 발굴 기본계획」에 따르면 행정구역별 4·3사건 관련조사 마을수 및 유적 분포는 각각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조사 마을수

지역 구분	제주읍	조천면	구좌면	애월면	한림면	한경면	서귀면	남원면	표선면	성산면	중문면	안덕면	대정면	총계
전체 마을수	24	10	12	19	15	13	12	9	6	12	8	11	11	162
조사대상 마을수	24	9	11	16	10	6	6	8	5	6	7	6	6	120

(인용: 「제주4·3유적 종합정비 및 유해발굴 기본계획」, p.45)

<표 2> 유적의 분포현황

지역 구분	제주읍	조천면	구좌면	애월면	한림면	한경면	대정면	안덕면	중문면	서귀면	남원면	표선면	성산면	총계
잃어버린마을	33	10	8	3	6	2	1	8	5		10	1	1	108
성	8	2	1	20	7	6	6	2	6	2	4		1	64

구분 \ 지역	제주읍	조천면	구좌면	애월면	한림면	한경면	대정면	안덕면	중문면	서귀면	남원면	표선면	성산면	총계
은신처	9	11	3	3	2		1	2	1		3			35
학살터	40	12	16	13	12	8	10	7	13	6	9	5	3	154
수용소	2	3			2		1	2	2	5		1		18
주둔지	17	6	5	13	4	5	4	3	5	8	7	3	3	83
희생자 집단묘지		1			1		1				3			6
비석	17	1	1	5		1	1	1	4	4	2	2	2	41
역사현장	9	7	6	8	3	2	5	2	4			3	2	61
기타	3	2	1	1		1	1	3	2	1	1	1		17
총계	149	58	42	90	37	25	31	30	42	26	39	16	12	5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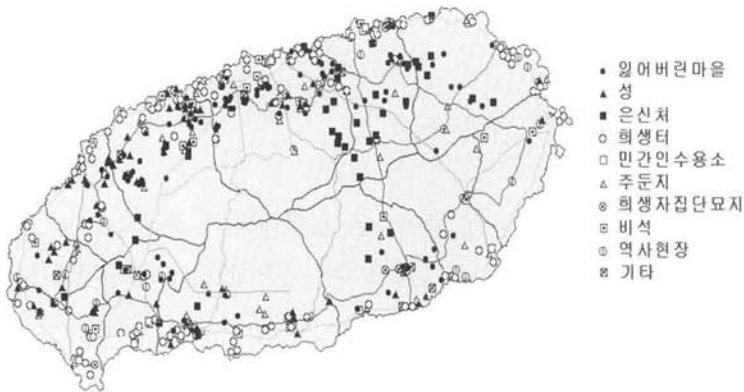
(인용: 「제주4·3유적 종합정비 및 유해 발굴 기본계획」, p.45)

〈표 1〉과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4·3사건 관련 유적은 제주도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고 유적의 형태도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유적지를 정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리라 예상되나 보존상태가 우수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정비와 아울러 향후 운영관리에 대한 프로그램개발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잃어버린 마을, 성, 은신처, 학살터, 주둔지를 중심으로 유적분포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2. 4·3사건 관련 유적의 분포 현황 및 공간 활용의 역사적 의미

4·3사건 유적 I(제주시, 북제주군), 「4·3사건 유적 II(서귀포시, 남제주군)」에서 조사하여 제시된 유적들을 Arcview GIS를 이용하여 〈표 2〉에서 제시되었던 유적의 전반적인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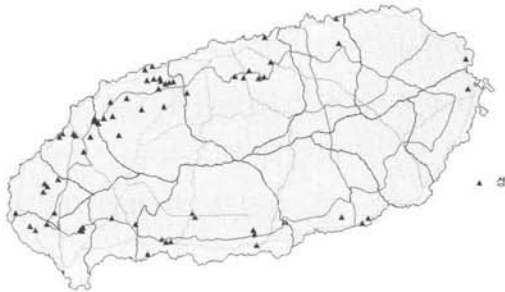
1), 산남과 산북에 걸쳐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4·3사건 발생 장소가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집중적으로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주도 전 지역에 걸쳐 다양하고 복잡하게 사건이 발생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 항목 중 잃어버린 마을, 성, 은신처, 학살터, 그리고 주둔지 등 주요 유적의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4·3사건 유적의 분포현황

1) 성(城)

1948년 12월 이후 무장대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마을주민을 동원하여 마을주변을 따라 성(城)을 축조하였는데 아직까지 현존하는 성을 의미한다. 성의 분포를 보면, 애월읍과 한림읍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그림 2), 이들 지역에 무장대의 마을습격이 비교적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되며 그에 따른 충돌과 희생이 많았으리라 생각된다.



<그림 2> 무장대의 침입을 막기 위해 구축한 성(城)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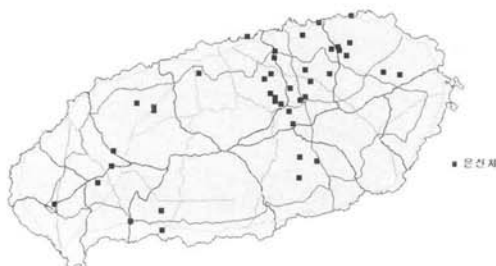
2) 은신처, 희생터, 주둔지

4·3사건 발생 기간 동안 주민들은 토벌대와 무장대의 사이 놓여진 불안한 상태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은 토벌대와 무장대에 쫓겨 동굴과 산속에 피신하여야 했다. 이들이 피신처로 사용하였던 장소를 의미한다. 은신처의 분포를 보면(그림 3), 전반적으로 중산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 특히 동쪽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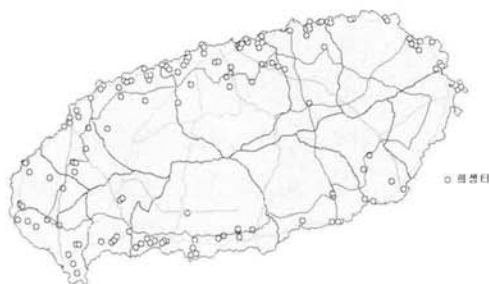
이는 앞서 언급하였던 성의 분포 경향이 중산간지역이면서도 비교적 서쪽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은신과 방어하기 위해 축성을 하였던 서쪽과는 달리 이에 충분한 은신처를 확보하지 못하였던 동쪽은 지형적으로 오름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동굴과 같은 공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은신이 많았으리라 추측된다.

반면 토벌대와 무장대에 의해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학살된 장소인 희생터는 산남과 산북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데 특히 서쪽지역

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해안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흥미 있는 것은 군인, 경찰 혹은 서북청년단, 무장대가 주둔하였던 지역의 분포와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그림 4와 그림 5참조) 이는 토벌대와 무장대의 주둔지역을 중심으로 학살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주둔지에 인접한 마을의 주민들이 많은 희생이 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 은신처의 분포



<그림 4> 희생터의 분포



<그림 5> 주둔지의 분포

3. 1940년대-1950년대의 건조물 특징 분석

앞서 4·3사건과 관련된 주요유적의 분포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후 사회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건조물이 구축되기 시작하였으며 장기거주를 위한 주거공간이든 임시적인 주거공간이든 1940년대와 1950년대의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 주거건축물¹⁾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특징을 분석하는 주안점은 형태적 측면, 공간적 측면, 재료사용측면, 구조 및 설비 측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형태적 측면과 공간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특징을 분석정리해 보기로 한다.

1) 김태일(2005), 『제주건축의 맥, 제주학 총서1』, 제주대학교출판부, pp.86~93. 김호선·김태일(2000), 「제주지역 근대주택의 특징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1950년대와 1960년대의 주택을 중심으로-」, 『논문집』, 제11권 2호, 제주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pp.166~172. 김태일 외 공저(2007), 『제주인의 삶과 주거공간 제주학 총서3』, 제주대학교출판부, pp.71~76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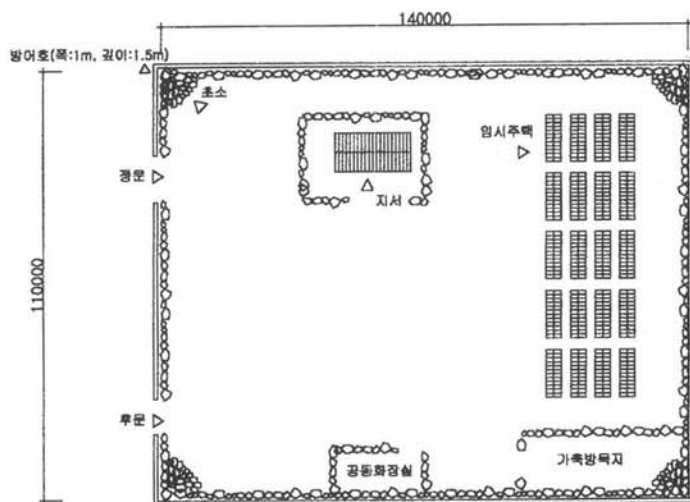
1) 성(城)²⁾

4·3사건 발발 당시, 산사람들에 의하여 자주 습격 받는 일이 잦아지게 되어 마을을 요새화하거나, 이들을 토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산간 마을에 대하여 1949년 2월 소개령³⁾을 내려 해변마을로 이주하게 하는 등 주거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산사람들에 대한 토벌이 끝나갈 무렵인 1949년 봄에 들어서 해변마을에 소개하여 있던 주민들에 대한 복구지가 정해져 이주하게 되었는데, 그 복구지가 전략촌이었다. 이 전략촌은 소개민을 수용하면서 통제하기 용이하고, 또한 산사람들과의 연계 차단 혹은 동조세력의 색출을 목적으로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건설된 마을이었다. 건설부락 혹은 재건부락으로도 불리었다.

전략촌의 크기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낙성동의 전략촌 흔적지는 140m×110m(그림 6)로서 거의 정방형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크기는 일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축성작업은 반장의 책임아래 반별로 구역을 할당하여 진행되었는데 불탄 집터의 울담이나 밭담을 맨손 혹은 지게와 짚으로 만든 등태 등을 이용하여 등집으로 지어 날라 방호벽을 구축하였는데(그림 7), 방호벽 밑에 습격을 막기 위하여 약 폭 1.0m, 깊이 1.5m 정도의 도랑을 파고 가시나뭇, 실거리 나무 등으로 둘러쳤다(그림 8).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전략촌의 배치 형태를 보면(그림 6 참조), 정문과 후문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내부에는 지서, 집단적인 형태의 임시주택, 가축방목지, 공동화장실, 초소 등이 있었다고 하며, 초소 하부에는 순번제로 대기하는 공간이 있었고, 상부에는 원두막형식으로 집을 짓고, 보초를 섰다고 한다.

2) 4·3성 혹은 전략촌으로 불림.

3) 그 당시 소개령이 내려진 후, 백여 개의 중산간 마을이 폐허가 되었고, 가옥이 15,000호, 35,000동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제주도(1997), 『제주실록』, p.44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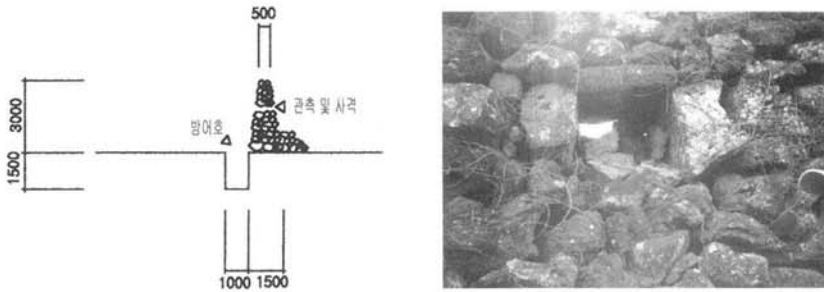


〈그림 6〉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축조된 전략촌의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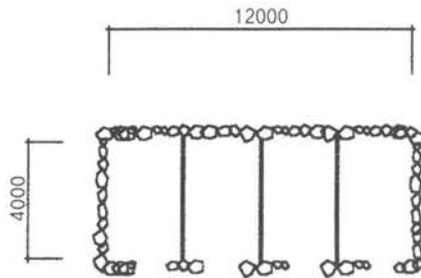


〈그림 7〉 마을 사람을 동원하여 축성을 하는 모습과 초소의 모습
(위 왼쪽)

(출처: 제주학연구소(1999), 『제주학』, 제3호 여름)



〈그림 8〉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전략촌의 방호벽 단면(왼쪽)과 관측 및 사격을 위한 개구부 모습(오른쪽)



〈그림 9〉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전략촌 임시주택의 평면

임시주택은 집단주거형식으로 1동당 4세대 형식의 평면구조(그림 9)를 취하고 있고, 임시거처였기 때문에 내부공간은 바닥에 고사리 등을 깔아 놓고, 다른 구석에서 밥을 해 먹으면서 살았다고 한다⁴⁾.

2) 피난민주택

6·25사변이 끝난 후, 피난민을 위한 「난민귀농정착사업」을 1955년

4) 김형조씨의 증언(선흘리 1200번지, 1922년생, 4·3사건 당시 27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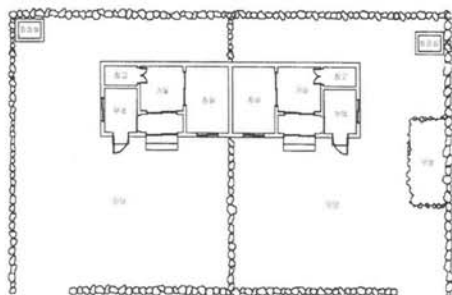
도 시작하여 1959년에 종료되어 5년 동안 실시되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전쟁으로 인한 난민뿐만 아니라, 4·3사건 등으로 인한 난민을 포함하였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제주도가 계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⁵⁾.

피난민들의 정착을 위해 우선 주택을 제공하였는데, 지역상황에 따라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건축하였다. 이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남아 있지 않으나, 현재 봉개동 일대에 일부 남아 있는 주택이 주택형태와 내부공간을 고려한다면, 도시형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 난민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2세대가 거주하는 형태이지만 합벽을 중심으로 돌담으로 외부와 경계를 구분하면서 독특한 형태의 주택이다. 각 세대별 별도의 출입구를 가지고 있으며 화장실은 외부에 두었다(그림 10, 그림 11). 또한, 각 세대는 독립된 마당과 우영 밭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외부 공간은 기본적으로 제주의 주거공간을 답습하면서도 주택내부공간과 지붕형태, 마감재료 등에 있어서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현대적인 주택으로 평가된다.



〈그림 10〉 1주택 2가구형태의
피난민주택의 외관
(봉개동 소재, 1959)



〈그림 11〉 피난민주택의 평면
(제주시 봉개동 소재)

5) 《제주신보》, 1959.4.4일자.

3) 후생주택(재건주택)

6·25사변 발발 후,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1953년부터 정부는 본격적으로 주택의 파괴된 것을 재건하고, 또한 월남한 피난민들이 증가하여 심각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주택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 당시 주택건설은 지금의 행정자치부에 해당하는 사회부가 주관하였는데, UNKRA(United Nation Korean Reconstruction Agency)⁶⁾의 원조를 받아 경인지역을 비롯하여 전국 각도에 후생주택(厚生住宅)을 건설하였는데, 일명 재건주택(再建住宅)으로도 불렸다. 제주도에서도 몰려온 피난민을 위해 후생주택을 건설하였다.

제주도에 건설된 후생주택은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신문기사⁷⁾등의 기록으로 보아, 원조에 약 20호 정도의 주택이 일정한 부지를 구획하여 집단적으로 건설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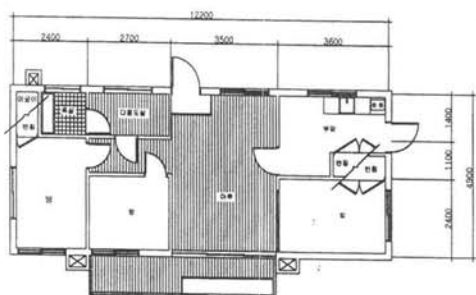
현재 제주도에 남아있는 후생주택은 몇 채 되지 않으나, 삼도1동에 남아있는 후생주택의 외관(그림 12)을 보면, 제주도의 전통적인 배치 방식과 달리, 일정한 토지를 바둑판 모양으로 구획하여, 집단적으로 건축하였음. 현재 삼도1동에 남아 있는 후생주택을 조사한 결과 9평과 18평 2종류(그림 13)가 건설된 것으로 보인다.

6) 한국의 경제부흥, 재건을 돕기 위해 1950년 12월 유엔총회의 결의로 창설된 원조기관으로 1958년에 해체되었다.

7) 《제주신보》, 1959.2.13일자.



<그림 12> 후생주택의 외관(삼도1동, 소재)



<그림 13> 후생주택의 평면(18평)

Ⅲ. 결 론

1940년대와 1950년대는 식민지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전쟁에 의해 우리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혼란의 시기였으며 동시에 근대화로 이행해 가는 변혁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48년 발생한 4·3사건은

제주사회에 적지않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남긴 사건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2가지 부분에 초점을 두고 정리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4·3사건 조사보고서의 자료를 활용하여 피해의 공간적 분포 특징을 새롭게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중산간 마을의 피해가 상당히 컸음을 파악할 수 있었고 특히 토벌대의 주둔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정도가 커서 상호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소실된 마을, 은신처, 학살터, 그리고 방어목적으로 구축된 성(城) 등은 지역적 분포가 각각 다른 특징을 보였는데 이는 토벌대의 작전전개방식이나 지역적 여건 등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는 4·3사건 이후 한국전쟁 발발 시점을 전후하여 혼란스러웠던 당시 사회의 여건 속에 구축되었던 성(城), 피난민주택, 후생주택(재건주택)의 주거건축물에 대한 특징이다. 임시적으로 방어목적으로 구축된 성(城)을 제외하고는 이들 구조물은 제주의 전통건축과는 전혀 다른 재료 즉 시멘트와 목재를 사용하는 등 재료적인 차이점도 있으나 형태와 공간구조를 구축된 건축물이라는 점이 가장 특징이다. 즉 경사지붕의 형태라든지 거실개념의 공간을 배치한 점 등은 현대적인 주거공간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후생주택(재건주택)의 내부공간은 화장실과 욕실을 내부에 두고 있고 다용도실을 내부에 설치하는 등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현대적인 주거공간으로 건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주거공간이 제주의 주거공간의 근대화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시대와 사회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관련 유적과 주거건축물은 시간의 흐름 속에 훼손되어 가고 있거나 철거된 것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어서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4·3관련 유적 및 주거건축물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를 평가하여 보존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평화의 섬 지정과 실천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아픈 과거의 교육의 장으로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3관련 유적 분포를 분석하여 본 결과, 잃어버린 마을, 성(城), 은신처 등의 유적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산재해 있고 각 유적에 따라 군집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는 분포상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유적의 성격과 분포형태를 고려하여 테마별 기념관으로 개조하여 다양한 형식의 역사교육현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4·3사건 관련 유적과 주거건축물의 분포를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나 연도별 그리고 규모별 특징분석에 이르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자료수집과 면밀한 연구가 필요 하다.

〈참 고 문 헌〉

- 김태일(2005), 『제주건축의 맥 I』, 제주대학교출판부
 김태일 외(2007), 『제주인의 삶과 주거공간 II』, 제주대학교출판부
 김호선·김태일(2000), 「제주지역 근대주택의 특징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1950년대와 1960년대의 주택을 중심으로-」, 『논문집』, 제 11권 2호, 제주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노형초등학교 후원회(1998), 『노형교육50년사』.
 제주도(1997), 『제주실록』.
 제주신보, 1954.1.31 기사
 제주신보, 1954.3.28 기사
 제주신보, 1955.2.18 기사

제주신보, 1959.2.13 기사

제주신보, 1959.4.4 기사

제주도/제주4·3연구소(2003), 『제주4·3유적 I·II』.

제주도/제주4·3연구소(2005), 「제주4·3유적 종합정비 및 유해 발굴
기본계획」.

제주학연구소(1999), 『제주학』, 제3호 여름.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the historical sites related to the April Third Incident and the distribution of residential architecture from 1945 to 1955.

Kim, Tae-II*

ABSTRACT

The 1940s and 1950s were a period of both great chaos and great change for the Jeju region. The April Third Incident of 1948 and the ensuing Korean War, beginning in 1950, were events that altered society greatly, but very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how these events impacted residential architecture. Furthermore, as the related sources and materials from this period are somewhat lacking, there appears to be a need to systematically organize these sources and materials to help us better understand the impact of these events on residential architecture.

This research aims to serve as a basis for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assets by analyzing the historical sites related to the April Third Incident and the distribution of residential architecture from that period.

The research was done through analyzing original source documents and by visiting relevant sites. First, for the original source documents, we selected newspaper articles from media organizations and periodicals from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hat

* Professor, Faculty of Architecture Jeju National University

what we deemed to be relatively objective and the most factual. Second, for the on-site visits, we surveyed some still-existing residential architecture and analyzed the testimonies of residents who lived in those areas. Analyses of residential architecture typically include form, space, material, composition and facilities, however our analysis focused primarily on form and space.

Based on sources from the April Third Incident, we analyzed the residential architecture as being characterized by damage spatial distribution, especially in areas where the leaders of the suppression were concentrated.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lost villages, places of refuge, massacre sites, and fortresses designed primarily for defensive purposes was interesting, but we interpret it to be a reflection of the strategy of suppression by the punitive force.

In addition, in order to rebuild the society after the Korean war of the 1950s, refugee camps were constructed and destroyed homes were rebuilt. With the exception of temporary fortress built primarily for defensive purposes, these were built with materials that were totally different from traditional Jeju architecture, such as cement and wood. The most interesting differences, however, were those of form and space composition.

This research was limited by the fact that we did not analyze the specific years of completion or the size of the structures, and thus there still remains a need for a survey of diverse source materials and research.

Key word : The April Third Incident of 1948, Korean War,

Vesidential architecture, Jeju architecture

논문투고일 2010. 06. 13

심사완료일 2010. 08. 07

게제확정일 2010. 08. 16